

한국 자연기후에 최상의 Cover Plant

패랭이 시리즈

패랭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토종의 식물이다. 석죽과의 다년초로 그 종류도 많고 생육 적응범위가 넓어 제주에서 제주도 전장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패랭이는 우리가 흔히 알맞고 특히 건조지가 많은 우리의 조경현장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패랭이, 상록패랭이, 솔패랭이 등을 제외한 우리꽃에서 교배육종, 혹은 선발육종된 우수 품종을 시리즈 별로 소개한다.



좌: 왕상록패랭이 1호 꽃피기 전 우: 왕상록패랭이 1호 꽃피기 후

1. 왕상록패랭이 시리즈

왕상록패랭이는 일반적인 상록패랭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잎과 꽃이 크고 분포층의 위 집결이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판에 들어간 1호부터 7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선 왕상록패랭이는 일반 상록패랭이에 비해 우선 잎의 집결이 매우 뛰어나고 꽃이 화려하며 분포층이 있게 자리지만 키는 25cm 내외로 작다. 잎이 매우 조밀하고 식재 첫해는 마치 회양목같이 동그랗게 자라고 겨울이 되면 전체적으로 잎을 누이고 상록으로 활동을 한다. 이듬해 일찍 새순을 내며 아주 조밀하고 많은 꽃대를 올리고 화려하게 개화한다. 또한 일반상록패랭이는 여름철 우기에 많이 물러지거나 병이 들어 고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왕상록패랭이는 거의 물러지는 경우가 없이 강하고 한번 피기가 되면 기타 다른 식물의 유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로 식물의 라인을 넣거나 혹은 도로변, 중앙분리대 석축의 돌출식재, 계단 주변 등의 틈을 이용한 식재와 옥상조경 등에도 매우 효과가 좋다. 피복능력은 일반 상록패랭이의 3배 정도는 빠르다. 잎의 집결이 분부족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식물소재로 공작자는 맺지 않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종류로는 3호와 5호 가 있다.

2. 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는 이미 시판한지 3년이 된 품종으로 한번 이용한 현장 관리자들은 다른 현장에 반드시 이 품종을 추천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다.

키는 10~15cm정도이고 꽃은 4월부터 서리가 내리는 10월 말까지 연속해서 개화하는데 만개 시에는 꽃잔디보다 더 화려하다. 5월에 가장 많은 꽃을 피우는 시기로 이만개시기가 지나면서 꽃의 수가 적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온다. 이는 종자를 맺기 때문에 종자를 키우는데 양분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잔디 깎는 것처럼 예쁘게 깎아주면 2주일 내로 다시 꽃을 피운다. 한 여름철 고온기에는 꽃이 주춤하다가 초가을부터 다시 많은 개화가 되고 겨울은 반상록의 상태로 월동한다.

주로 식재 장소로는 꽃잔디와 유사하고 골프장지의 경우는 그린 주변으로 식재, 잔디 깎을 때 가깝게 깎아 주면 더욱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다. 옥상조경에도 매우 좋다. 종자도 번식하면 키가 커지거나 꽃이 연중 개화 되지 않는 등 퇴화가 빠르다.

3. 카펫패랭이

상록성의 포복성 패랭이로 매우 조밀한 잎과 답답(답답함)에도 매우 강한 아름다운 꽃이 장점이다. 꽃이 필 때는 흡사 카펫을 깔아 놓은 듯한 형상이다. 흰색과 분홍 그리고 빨강의 세 품종이 있으며 줄기에서 뿌리가 잘 내리므로 웬만큼 밟아도 생육에는 어려움이 없어 잔디밭 주변 혹은 골프장지의 그린 주변 등에 좋다. 꽃이 지면 짧게 깎아내면 줄기의 발생을 유도하면 더욱더 좋은 꽃을 이룬다. 옥상조경에도 매우 유리하다.

4. 기타 신상품 패랭이

백두산이 원산인 난쟁이패랭이는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꽃이 볼거름로 피며 약간의 포복성으로 꽃이 조밀하고 키 매우 아름답다. 숙근성의 석축 품종인 '작품'은 꽃이 매우 화려한 빨강으로 강렬한 꽃을 봄과 가을에 피운다. 건조지 혼식에 매우 유리하다.



- 1. 왕상록패랭이 2호
- 2. 왕상록패랭이 3호
- 3. 왕상록패랭이 5호
- 4. 왕상록패랭이는 잎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생육이 강건하며 재배가 용이
- 5. 잔디패랭이는 지면의 우수배출을 유도하여 여름 물 관리에는 공방이 없다.
- 6. 카펫패랭이(분홍, 흰색)
- 7. 난쟁이 패랭이는 꽃이 피지않아도 조밀한 모양으로 카펫과 같은 느낌을 준다.
- 8. 작품은 '작품'은 강한 포복성의 패랭이로 도로변이나 혹은 골프장지의 그린 등에도 적용가능하다.

1번 기사 계속

조에 강하고 습해에 약한 식물이라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하단부 및 둔치의 식물상과 달리함으로써 식물종의 다양화와 보합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천 둑의 조경에서도 각 건조지인지 혹은 일반적인 환경인지 꼭 따져보아야 하며, 상층부의 침수 가능성이 대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하천 둑의 나무 아래는 음지와 양지의 계절적 변화와 시기별 일조량을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나무가 식재된 하천 둑을 조경할 경우에는 봄가을의 제한적인 양지에서 여름에는 음지로 바뀌는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안정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역에는 주로 혼합식재를 유도하되, 활엽수 아래의 생육시기를 중심으로 한 양, 음지를 구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복수초를 일관적 자연상태에서는 음지식물로 구분하지만 조경에서는 활엽수림 아래의 양지식물로 분류 해야 한다. 즉, 이런 범주의 식물은 활엽수의 잎이 없는 시기에 개화하

며, 전체적으로 햇빛이 좋은 장소에서 화색과 화기가 모두 깊어진다. 이들은 조경적 관점에서는 제한적 양지식물로 분류해야 한다.

다섯째, 식재지의 특성에 따라 군식의 면적을 달리 해야 한다. 왕상록 패랭이 호트는 지역의 경우 유육을 고려하고 정수기능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식재하되 너무 많은 면적을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식물이 너무 번식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 할 경우 작은 비에도 둔지까지 범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차 하천 바닥 둔치의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의 군집을 적게 조성하는 것 보다 되도록 큰 무리를 형성함으로써 범람이 되어도 기타 다른 식물종차 전이 식물이 쉽게 우점을 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군집이 형성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콘크리트 블록이 형성된 곳은 복사열에도 견디고 줄기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며 맹아력이 뛰어난 식물을 적용한다.



여섯째, 식재지 침수로 인한 피해는 단시간에 복구, 경관을 재연출토록 한다. 둔치의 경우 침수 후 지상부가 고사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



21C는 생태조경이다



(주)부릉세상 대표 정병현

유망품목 재배 관리

도시문명의 발달로 오랫동안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던 생태계의 균형관계는 인류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 등 인류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환경과 관련 있는 각종 오염은 우리자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흐름에 관련하여 생태학(Ecology)이 조경학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많은 연구 활동과 저서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장들을 둘러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시공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녹지의 총량만 강조하다 보니 주위의 여건이나 녹지의 다양성 등을 무시한 식물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우야 이루어졌던 이런 시공으로 인한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 '조경가'들이 져야 할 것이다.

녹지자원은 생태계 질서의 기본이며 녹지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역할을 보면 경관향상, 미기후 조절, 대기정화 기능이다. 이런 기능들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가꾸고 활용하는 것이 조경영역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권리일 것이다.

우리 주위환경이 틀림에서 우는 개구리나 귀뚜라미, 반딧불이가 더 이상 낯선 환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우리 후세를 위하여 친 환경적이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먼 훗날 조경가들이 앞장서서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고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환경과 더불어 발전하는 조경학의 미래를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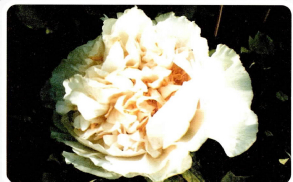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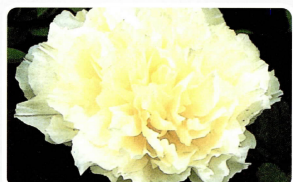
(후부릉세상은 부천에 사무실을 둔 전문 조경 설계, 시공 및 유망(미래)화목, 식재와 식물으로 콘조경을 겸하는 기업. 전화0332-676-2222

부귀의 상징, 향기 많은 꽃 - 개량 목단



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환경에 알맞게 선택할 수가 있다. 목단의 식재 시기는 봄, 여름을 피하고 가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목단의 생육특성 때문이다.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간에 뿌리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썩게 되고 새로운 뿌리의 형성이 되지 않아 영양공급이 잘 되지 않고 고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봄은 화제가 신속히 성장하는 시기로서 이때에 뿌리에 상처를 주게 되면 새로운 뿌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양공급에 장애를 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은 수년간 지속된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토양온도가 10~20도 높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인데 이때는 상처도 빨리 아물고 새로운 뿌리도 신속히 형성됨으로 활착률이 높고 월동 또한 잘된다. 너무 늦

으면 동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식재하는 습지를 제외하고는 빛이 드는 모든 토양에 가능하다. 일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꽃망울 형성시기와 꽃 진후에 2-3회 인비 혹은 칼슘(석회)비료 500~1000배 희석하여 관주해 주면 꽃이 크게 되고 새로운 화아형성이 더욱이 된다. 정지할 시기는 개화기가 끝난 후 바로 해야 하는데 한 가지에 두개의 눈만 남기고 밑 부분의 신생맹아지는 잘라 버리는 것이 좋다.



1번 기사 계속

시 새순이 나와 상순을 엮고고 다시 푸르게 변화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토사가 약간 많이 쌓였거나 둔지에서 가을행사 등이 있다면 개화가 빠른 1년초의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짧은 기간 내에 경관의 재연출이 가능하다. 매밀, 극조생 코스모스, 극조생 해바라기, 칸칸이데나불 등의 식물은 거의 계절과 상관없이 파종하면 후, 1달 후의 약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할 뿐이다. 이들 식물을 파종하여 경관을 연출해도 맹아력이 뛰어난 기존식물의 억압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식물이 되었든 숙근초의 뒷쪽우기 파종은 피한다. 익년 봄에 개화하는 유채, 혹은 이와 비슷한 식물의 경우 이른봄이 이미 개화 후 열매가 맺기 전에 제거하여 종식하여 본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한다.

위에서 제시된 내용은 주로 도시형 하천의 특성을 감안한 제안이다. 완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꽃은 이 제안을 통해 또 다른 문체제기와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귀부인의 화려한 봄 나들이

저먼아이리스(독일붓꽃)

화려함의 진수, 나만의 화색 연출

저먼아이리스



특징

- 1.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다.
- 2.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용이하다.
- 3. 잎과 꽃이 모두 아름다운 특히 고급조경에 알맞다.
- 4. 건조에도 매우 강해 육상조경에도 적용 가능하다.
- 5. 기타식물과의 혼합은 물론 혼자만의 색을 연출할 수 있다.



**우량의 향토종 복원
흰붓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움
·뿌리가 엉키지 않아 밭만 경사지 등의 조건에 매우 유리하다.
·노랑색이 섞인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생육이 강하고 재배가 쉬워 이탄장소에도 좋다.



**꽃이 크고 다화성인 진초색
개량꽃잔디**(새틴이라는 기본 꽃잔디)
여름 하고연상 무. 절간이 짧은 강자
·화색이 선명하고 꽃이 크다.
·잎질에도 친한색으로 줄기마름현상이 없다.
·절간이 짧고 강건하면서도 지름은 빠르다.
·겨울철 심형묘의 착빙방편이 적다.



**새로운 방법 Seed Spray의 표준
우리법면 3호**
한국 자연에 알맞은 토종의 혼합종자
·한국 법면 녹화 사업 이시점 극적인 심동은 없었다.
·진초, 미더의 뿌리도 심고 없다.
·법면의 가을까지 연속개화 진행
·저지연이 가파른 안정된 식물 혼합비



**아름다운 법면의 새로운 표준
우리법면 4호**
우리법면 3호에 화려함을 보강한 혼합종
·Seed Spray 인으로 안정된 혼합식재 완성
·1회 뿌림만으로 생체적 광원조성
·우리법면 3호에 비해 건조에는 탁월



**상록의 황금색무늬
상록황금무늬사초**
키작은 포인트 식물
·황금색의 무늬가 아름답다.
·건조 및 음조에도 강해 적용폭이 넓다.
·상대적 잎은 겨울 경관을 위한 포인트 식물로 시재해도 매우 효과적이다.



**화려한 구근식물의 제도약
크로코스미아 '루키'**
방직의 화려함, 새로운 대안식물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재배가 쉽다.
·꽃이 매우 화려한 최고의 여름식물
·습해에도 강하고 병이 적어 물이 침수 우려 지역의 등지에 대안적 시재도 유리하다.



**생육이 강건한 아름다운 등자
수레동자꽃**
꽃무리가 크고 연속개화 OK
·일반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꽃무리가 크고 지속적인 개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생의 강건함은 이탄장소에도 녹인다.
·줄기가 튼튼해 잘 쓰러지지 않는다.



**여름에도 무늬 생생
옥잠 '골드티아라'**
포기 모양이 좋은 고급조경용
·포기 모양이 좋아 빠른 혼합성
·이탄장소에서도 아름다운 절경이 된다.
·꽃이 많이 피고 단단해 쓰러지지 않는다.
·입면만 아니라 꽃도 매우 화려



**하늘이 내린 최상의 지피식물
하늘초롱꽃**
4월에서 10월까지 연속개화
·이탄장소부터 꽃기까지 연속 개화
·꽃이 크고 꽃이 많은 절경이 된다.
·꽃이 많이 피고 단단해 쓰러지지 않는다.
·분화율으로도 최상



**꽃이 이보다 좋을 수가
후룩스 '골드민'**
황금색의 무늬종
·황금색의 무늬가 아름답다.
·건조 및 음조에도 강해 적용폭이 넓다.
·상대적 잎은 겨울 경관을 위한 포인트 식물로 시재해도 매우 효과적이다.



**황금색의 파도라마
황금 이질풀**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다운 신소재
·우리원장에 알맞은 고품종
·잎의 두께가 울수 수 이끼의 새로운 시도
·중금속오염도를 경감시키는 환경식물



**진한 붉은 색의 향기주머니
후룩스 '웅주'**
병충해 강한 장기개화형
·생육이 매우 좋고 키가 작다.
·방향이 화려한 꽃이 연경개화 한다.
·양면, 끝부분 등의 고급조경에 유리하다.



**대형 포인트 식물
흰줄무늬새**
한국의 새로운 지피조경소재
·독립의 볼륨있는 조경 가능
·무늬색의 아름다움은 꽃은 매우 고급스럽다.
·인경에도 고급스러운 조경 유리



**아름다운 붉은 물결
서양붉은튐풀**
생육과 지피력이 양호
·근경이 포인트용 자라 지피력이 우수하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은 매우 고급스럽다.
·이탄장소에서도 아름다운 절경이 된다.



**아름다운 화려한 지피식물
양구슬갯비늘**
락가튼은 물론 육상 조경 최고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건조에도 강하고 피파력이 뛰어나다.
·나뭇가지 주변 혹은 돌틈새에 틈에도 좋다.

우리 자연에 알맞은 최고의 소재

개량원추리

새로운 한국조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량원추리



특징

- 1.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다.
- 2.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용이하다.
- 3. 대면적 식재를 비롯, 이탄장에도 어울린다.
- 4. 화기와 화색이 다양하고 화려해 이들간의 혼합조건이 가능하다.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개량원추리**
연꽃식재, 화관식재, 절시식재 등 용도가 다양
·꽃이 매우 화려하다.
·일반종에 비해 꽃수가 약 10배 많다.
·도시의 지역에도 강한 최고의 이탄대용
·디디가 짙어 좁은 면적에 많은 꽃과 입울 볼 수 있다.



**봄, 별개미취와 불려도 좋다
구름국화**
키작고 화려한 꽃무리
·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화색이 다양한 최고의 화단식물
·건조한 지역에도 강한 최고의 이탄대용
·디디가 짙어 좁은 면적에 많은 꽃과 입울 볼 수 있다.



**소나무아래의 새로운 대안식물
노랑무늬대사초**
양용지를 가리지 않는 내건성
·경사지 및 소나무 아래 식재가 가능하다.
·개간성이 강하고 피파력이 뛰어나다.
·입이 아름답고 밝화, 분갈음으로도 으뜸
·등지의 라안식물에도 가능하다.



**절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발리리안**
꽃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조밀한 황금색 아름다움
·도포가 식재시 밀집한다
·입의 모양도 뛰어난 전천후 조경소재



**봄부터 가을까지 황금물결
속근화화코스모스**
조밀하고 아름다운 키작은 꽃방석
·5월부터 9월까지 연속개화
·조밀한 황금색 아름다움
·도포가 식재시 밀집한다
·등지의 건조지 화상의 대안적의 장란



**여름의 새로운 대안식물
긴산꼬리풀**
장마에도 강한 고급 야생화
·생육이 강건한 재배가 용이하다.
·꽃이 크고 꽃이 많은 절경이 된다.
·이탄장소에서도 아름다운 절경이 된다.
·분화율으로도 최고



**우리꽃 새템시리즈
새템 '블루솔'**
생육의 블루색 진주
·삼복색의 강한 새템
·꽃은 5월의 장미보다
·원색의 절경이 매우 좋다.
·생육이 강건해 잘 쓰러지지 않는다.



**가을에 수국 보냈나요
수국 '만추'**
일반적인 수국이 절때부터 개화
·일반적인 수국이 절때부터 개화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생육이 강해 이탄장소도 좋다.
·꽃이 자주 열려가 아름다운 이상향
·조형이 특히 아름답도록 가능



**재배가 쉬운 향기식물
속근꽃향유**
관용색의 아름다운 속근향유
·주위에 강한 향기 식재 가능
·생육이 강해 이탄장소도 좋다.
·꽃이 자주 열려가 아름다운 이상향
·조형이 특히 아름답도록 가능



**분홍색 루드베키아
에키나**
장기 개화형의 이국적 아름다움
·진한 새로운 조경 소재
·생육이 강해 이탄장소도 좋다.
·꽃이 자주 열려가 아름다운 이상향
·조형이 특히 아름답도록 가능



**이국적인 아름다움
디기탈리스**
복조, 전원주택 등의 건물과 공합
·생육이 강한 디기탈리스, 선분종
·꽃이 볼륨이 크고 화려하며 빛을 식물로 인호
·화기가 길고 화려한 고급품



**화려함의 결정판
매발틀 '메카나'**
봄의 화산, 화려함의 최상
·매우 아름다운 매발틀로 화색이 다양하다.
·일반적인 매발틀이 화려함을 더했다.
·화색이 아름답고 강해 최상의 포인트 식물
·공원, 포인트, 전원주택 등 최상의 장식용



**키작은 최상의 아름다움
속근왜성천국**
경멸적인 화려함의 진수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생육이 강해 이탄장소도 좋다.
·꽃이 자주 열려가 아름다운 이상향



**상록의 황금색 절경
실유카 '골드서드'**
황금색의 밝은 무늬종
·황금색의 상록무늬
·진한 새로운 조경 소재
·무늬가 뚜렷이 좋아 육림수에도 알로



**한국적 아름다움의 표준
왜성제비꼬갈**
생이 고급스러운 여름 진주
·키작은 제비꼬갈로 생육양호
·화기가 대폭 간 품종
·기타식물과 혼합재배도 효과적이다

